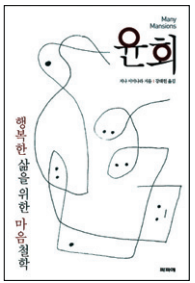


# ‘윤회’는 증명되고 있다



**윤회**  
지나 서미나라 지음  
강태현 옮김  
파피에 퍼냄  
1만8천원

‘윤회’의 비밀을 과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룬 책으로, 1950년 발행돼 100만부 이상 판매된 지나 서미나라 박사의 《윤회·Many Mansion》다. 인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전생과 내생에 대한 의문을 자주 품곤 한다. 곧 ‘윤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믿음의 영역인 명제를 증명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저자 지나 서미나라는 위스콘신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 박사로서, 인간의 삶과 윤회를 주제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많은 강연을 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영능력자이면서 최면요법을 통해 윤회의 추론적 근거를 제시한 에드가 케이지와 함께 그의 인상실험(리딩) 결과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한편, 실험대상의 사람들과의 풍부한 인터뷰를 통해 수많은 사례를 윤회와 카르마에 대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이란 태어나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으로 시작되는 책은 부처님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부다는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또한 답을 찾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부다처럼 삶의 불가사의를 풀기 위해 애정, 권력, 부, 쾌락, 가족의 따뜻한 유대를 끊어버리지는 못한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 천불천탑이 되고 다시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운주사의 석불들

다. 그러나 누구나가 이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답은 간결하다. “영혼은 영원하고, 윤회와 카르마는 현실이며, 인생은 학교.”라는 것이다. 즉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발현되며, 현생의 업이 내생을 규정하며, 인간의 자유와 의지가 운명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자연계의 생명체가 그렇듯이, 영혼도 연속적인 환생과 카르마의 법칙을 거쳐 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윤회를 이해하고 그 순환 고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면 생(生)과 사(死)의 문제에서 성격과 가족관계, 결혼과 이혼, 불륜, 직업선택의 문제 등 인생사의 수많은 고난에 대한 명쾌한 답이 제시된다는 것이다. 책은 현생에서

얼마나 자신을 가꾸느냐에 따라 내생의 자신이 얼마나 총만해질 수 있는지 결정된다고 말하며 현생에 대한 성실과 충실의 가치를 거듭 강조한다.

“어떤 부인은 어릴 때부터 밀폐된 장소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극장 같은 데를 가도 그녀는 언제나 입구에서 가까운 자리를 잡는다. 버스를 탔다가도 승객이 밀려들면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환장하지 않은 버스를 기다린다. 산이나 들로 소풍을 가도 동굴 같은 밀폐된 곳은 무서워했다. 케이지가 그의 최면요법으로 그녀의 무의식을 읽어낸 결과 그녀가 전생에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질식사했다고 말해주었다. 그 때의 무서운 기억의

흔적이 그녀의 무의식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프로이트 이래 무의식 연구에 활용되어 온 최면요법은 윤회론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과학의 시대인 21세기에 ‘윤회’는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한다. 세월이 흘러도 주제의 가치가 퇴색하기는 커녕, 오히려 과학의 발달로 책의 주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없다’, 또는 ‘불가능하다’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의 발달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정신과학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영혼의 존재, 윤회와 인과율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적 기초가 아무리 견고하고 과학적이라 해도 단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윤회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현대의 과학이 이것은 틀렸다고 단정할 때까지는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심리학과 자연과학, 두 영역의 과학자들이 케이지의 최면요법 실험에 의한 결과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고 맺음말에서 밝히고 있다. 결국 책은 ‘믿음’의 영역인 명제를 증명의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철학’이란 부제가 붙은 책이 독자들의 심리학적, 철학적 식견을 새롭게 가꾸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생명, 의식 및 인간의 운명에 관한 모든 중요한 면들을 드높이는 데 작은 자극제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저자의 바람대로 책은 많은 이들의 영혼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 넣어줄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노력

더 나은 죽음

댄 모하임 지음 | 노혜숙 옮김 | 이일화 감수  
아니마 퍼냄 | 1만2천원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와 개인들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 ‘으로 관심을 옮겨야 할 때다.’ 책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운 책이다.

존엄사와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보다 어떻게 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의학적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는 동시에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좀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의사이자 의회의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보고 느낀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시간이다. 질병과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가 발전시킨 수많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 책은 죽음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죽음을 잊은 채 살아가거나 일상적인 대화에서 제외시키려고 한다. 죽음을 무관심하게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간이 온다면 뜻하지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정리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부질없는 싸움으로 허비한다. “그 결과 우리는 임종 과정을 삶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어떤 의학적 조치도 소용이 없는 순간이 되었다면 생명 연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당하는 죽음’보다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고 맞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욕구와 그 수단으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특히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는 운동은 이러한 의학의 독재로부터 인간적 품위를 지키려는 욕구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안락사 논쟁’, ‘뇌사와 식물인간’, ‘연명기술의 경제학’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아쉬운 ‘사례’ 들, 법적 인 문제들 등을 다루고 있다. 책은 마지막에서 “나라면 어떡할 것인가?”고 묻는다.

저자 댄 모하임은 응급의학과와 내과학 전문의로 30년 넘게 임상으로 일했으며, 존스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겸임교수다. 1994년 이래 메릴랜드 주 하원 다수당의 원내 부대표이던 보건정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4~7/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명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인	쌤앤파커스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21세기 부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공헌치사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사찰의 상징세계	자연	불광출판사
7	시간의 선물	성원	담앤북스
8	성난 물소 놓아주기	아잔 브라흐마	공감의기쁨
9	해탈장엄론	김뽀빠	운주사
10	받아들임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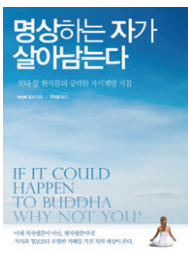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 명상은 오염된 마음 회복하는 길

명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비산트 조시 지음 | 우자경 옮김 | 물병자리 퍼냄 | 1만2천원



‘명상’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책이다. 부다에서 오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현자들의 자기 변화에 관한 노하우와 마인드 담겨 있다. 우선 명상을 해야 하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 짚어준다. 유쾌한 환경을 조성한 다음, 그 참담한 결과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각종 회의나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지구는 상처받고 있으며, 천국을 약속했던 종교지도자들까지 지구가 끔찍한 지옥이 되어가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그 결론 끝에서 저자는 말한다. “오염된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킨 오염된 마음 또한 인류가 직면한 문제다. 따라서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환경, 인간 존엄성, 국제적 연대 등을 회복하는 전제 조건이다.”고, 회복을 위한 수

단으로 제시되는 것이 ‘명상’이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혁명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저자는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현실을 고려해, 개념과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산트 조시 박사는 디팍 초프라 박사의 프로그램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유엔과 세계은행, 펜타곤 등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전인적이고 탁월한 비전을 강의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책은 부다, 예수, 크리슈나무르티, 카르비, 루미, 오쇼, 마하라시 등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현자들이 경험한 자기변화의 길이 담겨 있어, 명상에 관한 핵심을 그 어느 책보다도 이해하기 쉽다.

“명상은 나를 변화시키는 전라적이고 체계적인 적용방식이다. 고대의 현자와 신비주의자들은 인간의 ‘마음’과 ‘내면세계’를 영적으로 탐구해 왔다. 이들은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외부세계를 보듯 내면세계를 들여다보았다. 각종 실험과 의식적인 노력으로 주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 그들은 깨달음의 과학, 의식의 테크놀로지를 발견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과 에너지는 부활했다.

이것이 그들이 인류와 인간의 의식에 기여한 가장 위대한 공헌이다. 깨달은 이들의 비전과 지혜는 특별하다. 수평적 시간관념으로 보면 이들의 지혜가 2500년 이상 된 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지혜는 시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언제나 새롭고 합리적이다.”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신의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했을 때 자기변화와 자기개발이 가능하다. 내면의 기본과 건강, 마음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패러다임을 면밀히 살피려는 의지가 있으면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명상으로 집약된다. 명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선물을 한다. 하나는 무엇인지와 무엇이 아닌지를 아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자유다. 마음이 기계적인 과정에 빠진 사람에 삶에서 만나는 모든 기회를 놓친다. 명상을 통해 돌고 도는 생각의 움직임을 멈추면,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가 적자생존의 시대가 아닌 현자생존의 시대라고 말하는 저자는 책을 통해 현재의 인류에게 현자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불교학의 완성판
www.hyonjisa.com

**개정판**

# 팔만대장경의 진수를 담은 불교학의 완성판

## 21세기 부다의 메시지 I, II

부처님의 실존을 선언하고 무아와 윤회의 모순을 해결한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인간 영혼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아를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무아를 인간 영혼의 실체까지 없다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윤회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나만을 아는 욕심을 버리고 나를 비울 때 삼악도의 윤회고를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한 것이지, 생각하고 행하는 주제 곧 영적 실체까지도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보살도, 극락, 지옥까지도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21세기 부다의 메시지 I** / 정가 18,000원

부처님을 본다 / 무량광 / 건성은 공부의 시작 / '도움' 명언에 대한 입김 / 윤회전생 / 윤회를 넘어 / 불(佛)의 삼신을 말한다 / 깨울 /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불교, 그 위대함 /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 심해 / 청명명불 / 소·대승 불교경전 / 신통 / 지옥 / 공안 / 부처님께 공경드릴 수 있다면 천마 / 선공공덕의 보따리 / 불문의 사부중재 / 영적 스승을 만나라 / 가섭존자

**21세기 부다의 메시지 II** / 정가 18,000원

부다의 삶법 / 석가모니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 불신론 / 무아 속 절대계 / 이제야 타락 불교다 / 자연, 연기 / (회원명)법화경은 방편설이 아니다 / 용신, 인본인신 / 사람이 죽으면 어찌되나 / 윤회의 주제-인간 영혼의 실체 / 중생의 업장 / 무아사상 / 중생의 악행과 부처님 계율 / 영묘이 정법이다 / 대적관전, 다보탑, 석가탑 /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면 열반에 이르러 / 나리가 잘 살고 가정은 평안하기를

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이대성 교수

저술에 가 있는 독일의 자연과학자 '뒤 푸어레' (1818-1896)이 벌써 알아낸 일이다. 불가지론자인 프루타고라스, 인간인식의 한계를 주장한 칸트(1724-1804)도 데이비드 흄(1711-1776)도 모두 저술에서 온 담력을 것이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기원, 영계론과 부다의 삼신론, 부다의 구원론, 천도제의 필요성 등등, 인간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세기의 명저인 '21세기 부다의 메시지'에 들어 있다.

지은이 - 광명 만덕 · 재재 만현 ·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 T.033-243-1795, 243-1787 Homepage - http://hyonjisa.com

부산분원 - T.051-554-5150 대전분원 - T.042-525-5325 고성분원 - T.033-681-5515 서울분원 - T.02-453-5953 대구포교원 - T.053-654-5557

불서출판 운주사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